

‘예향 광주’ 3대 국립 문화시설 유치 미래 먹거리 확보해야

광주일보 73주년 제언

〈4〉문화도시가 미래다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의 다른 이름은 ‘예향’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건립됐지만,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 ‘문화수도’라는 명칭이 무색할 지경이다. 더욱이 인구가 감소하고, 도심 공동화와 쇠락이 심화돼 문화인프라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의 강점인 문화·예술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방소멸을 극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 인프라의 지역 분산과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바탕으로 지방균형 발전과 미래 문화 콘텐츠사업을 기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 미술관·박물관·도서관 유치= 3대 국립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의 광주 유치가 시급하다.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수도권 등 집중으로 문화기반 격차에 따른 젊은 세대 외부유출 등 국민 문화향유권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비엔날레의 도시, 노벨상의 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인 광주에 걸맞은 3대 국립문화시설이 들어서 문화향유권을 끌어올려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3대 국립문화시설은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수도권(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 중부권(청주관·대전관) 영남권(진주관·대구 국립근대미술관)에 분관을 두고 있지만, 호남권에는 한 곳도 없다.

이에 광주시도 시가 매입한 동구 신양파크호텔에 광주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비엔날레 30주년 전통에 빛나는 광주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선다면 일반 회화 소장품과 미디어 아트 등 현대 미술작품을 복합 전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의 도시인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광주는 5·18 이전 일제강점기 항일정신이 깃들여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의 최적의 장소가 광주인 것이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5·18당시 시민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투옥된 장소라는 점에서 광주시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다큐투어리즘으로 활용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지로 적극 추진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국회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유치하고

아시아문화조성청 설립해

ACC 창작·공연기관 역할 강화해

디지털콘텐츠융합산단 조성도

마지막 퍼즐은 국회도서관 광주관이다. 국회도서관은 수도권에 1개(서울 본관), 영남권 국회 부산도서관(분관), 세종시 이전 계획(국회도서관 포함)이 있지만, 호남권에는 없는 실정이다.

국회기록물 아카이빙과 민주·인권·평화 관련 자료의 집적을 위한 국회광주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광주에는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ACC)이 위치해 있지만, 사업에 필요한 국비 투입률은 30.6%에 그치고 있다.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는 조성됐지만,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조직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5조 3000억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완성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단위인 ‘청’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에 가칭 ‘아시아문화조성청’을 설립해 옛 전남도청 복원·운영과 함께 ACC 창작·공연기관 역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 사업 완성과 지속성 유지 등을 위한 조성청 신설해 2031년까지 유효기간인 특별법을 개정해 2036년까지 연장하고 기간 내 사업을 집중하기 위한 국비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의 협업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의 미래 신산업에 해당한다.

문화기술과 콘텐츠산업의 디지털콘텐츠융합 산업단지 조성이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것이다.

AI인프라 구축에 따라 AI기업들을 유치하는 한편 인공지능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은 광주시의 첨단산업 구상이다.

이 첨단 산업 구상에 콘텐츠 산업의 융합으로 문화 예술 콘텐츠 산업인재를 광주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AI콘텐츠제작 비즈니스타운 조성, 디지털 문화기술 공유대학 설립 및 운영, AI콘텐츠 융합 문화기술 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선 거소 투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7일 광주 광산구 산월동 광주보훈병원에서 유권자들이 거소 투표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갤럽, 이재명 49%·김문수 35%·이준석 후보 11%

오차범위 밖 1위 여론조사 잇따라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하루 앞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이날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 이재명 후보는 49%를 얻어 김문수 후보(35%)와 이준석 후보(11%), 권영국 후보(1%)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14% 포인트였다.

이재명 후보는 양자 대결에서도 52%를 기록 김문수 후보(42%)를 앞섰고, 상대를 이준석 후보로 바꿔 조사한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51%로, 40%를 기록한 이준석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탈 초(5월 3~4일) 중앙일보·갤럽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그대로였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2%포인트씩 상승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5.9%로 가장 높았다. 김 후보는 34.4%, 이준석 후보는

11.3%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는 11.5% 포인트 역시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50%를 얻어 김 후보(41.6%)를 8.4% 포인트 앞섰고, 이준석 후보와 양자 대결 시 이재명 49.3%, 이준석 34.9%였다.

중앙일보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 24.4%, 동아일보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응답률은 10.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민주 ‘진짜 보수’ 선언…李 “합리적 보수 역할 하겠다” 권오을·이인기 등 “DJP 연합 같은 지혜와 용기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DJP연합처럼 합리적 보수를 끌어안고 통합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짜 보수 민주 보수’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식에는 권오을·이인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남·최연숙·허은아 전 의원,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에서 활동했던 김신양(20) 씨가 참석했다.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윤병호 전 공군사관학교장·김현섭 전 777부대 사령관·조영수 전 해병대 2사단장 등 군 장성 출신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 광우 더희망금융포럼 회장도 자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국 현대정치는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 갈등과 대결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갈라뒀다”며 “그러나 진보와 보수가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의 두 날개로 기능할 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비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와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의 역할까지 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에서 진짜 보수와 합리적 민주 보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zgm, 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한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